

익산시-삼양식품, 상생발전 협력 다짐

정현을 시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발전 방안 논의

익산시가 향토기업 삼양식품(주)와 상생 발전에 뜻을 모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5일 모현동에 위치한 삼양식품(주) 익산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김래영 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만나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삼양식품(주)은 1971년 익산에 본격적인 생산 시설을 갖춘 이후 익산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과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공장 주변에 공동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입주민 생활을 고려해 친환경 경 보일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래영 공장장은 “올해 익산 천만송



이 국화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삼양식품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향토기업으로 익산과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에 있는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케이(K)-푸드의 대표 주자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익산시는 향토기업 성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1961년에 설립된 이래 60년 넘게 한국 식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을 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제품 개발과 혁신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12년 불닭볶음면 출시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고향사랑기부 동참

선진레이버 등 입주기업들, 군산시청 방문해 총 1900만원 전달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지난 15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총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기탁식에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물김을 고부가가치 마른김으로 가공해 수출하게 될 선진레이버 영어조합법인 김선미, 신일수산 김두일, 선승수산 이재승, (유)유건 노현래 대표와 거대한 중국의 해삼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 기업 (주)해신 김운봉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입주기업인 선진레이버영어조합법인 정정진 대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투자에 앞서 군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의미 있는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 어업인이 생산하는 품질 좋은 물김 원초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마른 김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군산시와 동반 성장하겠다.”라는 포부 또

함께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의 고향사랑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부금은 군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행이 다른 기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라고 말했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담례품은 쌀, 단팻빵, 박대, 텃갈 등 19개 품목의 군산시 특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하면 된다. 모인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대책 사전구축 나서

군산시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제설작업에 살포기와 제설기 부착 차량 52대(15톤 20대, 5톤 2대, 1톤 30대) 및 읍면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기 126대, 총 178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8개 구간선도로 상시 제설 및 읍면동 이면도로 제설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신속한 제설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제설제 사전 확보 및 장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제설제인 소금 및 염화칼슘 보유량은 현재 2,000톤이다.

시는 11월 중 2,800톤을 추가 확보하고 12월 이후 1,700톤을 구입하여 총 6,500톤의 제설 자재를 확보해 제설제 수급난 등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시내 지역 고지대 및 외곽 고갯길 등 취약 지역 모래함 358개소 정비를 추진하여 모래주머니 15,000개 제작하여 비치했다.

주요 제설 장비인 살포기와 제설기 점검 및 수리, 염수 분사 장치 3곳(단석산업업, 동백대교, 예술의전당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점검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 역시 이면도로 및 상가 밀집 도로와 인도변에 대해 내 집(상가) 앞 눈 치우기 등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 발령해야”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 2차 정례회 5분 발언... 협동조합 오피스텔 3년째 건립 지연 중 조합원들 피해 민원 속출·인근 시민 통행 불편 초래 지적... “익산시가 원상복구 할 판”

익산시 인화동 2가 181번지 리츠엘임대주택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수년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지난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건립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이로 인한 인근 시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당초 기한인 2023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해 1년 더 연기, 건축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말까지



손진영 의원

2월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연장 신청했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가 맹지형 필지를 살려 주면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결정까지 하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면서 “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2월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조규연 익산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신장·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도열)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조규연 익산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신장·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국비 2억7000만원 확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군산시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체와 다른 지적 도면을 바르게 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2억7,000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총 1,587필지 46만6,017㎡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선양지구 일대는 197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고지대 주택이 많고 영세 골목상권이 함께 하는 구도심 지역이다. 문제는 100여 년 전 지적도가 작성 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기를 당부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

반드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 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